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의
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편 84편4
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세계 로잔 복음화대회

7월 11~20일 필리핀 마닐라서 개최
세계 150여개국서 4천여명 교계지도자 참석

이종윤위원장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개교회의 주역 할" 논문발표

제2차 세계 로잔복음화대회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자"란 주제로 85명의 한국 대표단을 포함하여 세계 150여개 국의 대표단 4천여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한다.

동 로잔대회의 프로그램은 전 세계 교회가 복음 전체를 전 세계에 전하도록 부름받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날밤 세계적 부흥사인 빌리그래함목사의 개회 설교 후 매일 오전에는 복음 전체를 드러내는 성경강해를 영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스토틀박사와 스리랑카의 웨르난도목사 등이 맡게 된다. 오후에는 50여 개의 분과토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세상을 파헤치게 되는데 한국의 조종남박사(서울신대 학장)와 김준근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와 김장환목사(국동방송 사장) 등도 분과토의의 인도자로 활약케 된다. 오후에는 주로 워크숍을 통한 세계 복음화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저녁집회는 전 세계 교회의 동력화를 위한 모임으로 특히 둘째날 저녁에는 한국의 이종윤박사(충현교회 위임목사)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개교회의 주역할"이라는 주제 논문 발표가 있게 된다. 이 기간동안 각종 국제회의가 개신교 지도자들에 의해 열리게 되는데 특히 "2천년까지 세계 복음화 위원회"가 발족케 되며 로잔위원회의 국제총무인 토마스 왕목사의 후임으로 영국의 톰 휴스턴박사의 승계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 회의에 참석할 한국대표단의 준비 기도회가 지난 6월29일 충현교회 국제회의실에 모인바 있으며 이 기도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우리보다 어려운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참가자들을 위한 협력 지원금을 즉석에서 모금하기도 하였다.

충현성경연구원

89년 1학기 수료식 가져

교육위원회(위원장/오대희장로) 산하 성경연구원은 지난 7월2일(주일) 오후7시 본당에서 89년도 제30기 교사양성부, 제3기 찬양대원 양성부, 그리고 1학기 주간성경공부와 아담반 성경공부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날 수료식은 조인재장로의 학사보고와 이종윤목사의 시상 및 말씀·기도가 있었으며, 수료대상자는 교사양성부 77명, 찬양대원 양성부 34명, 주간성경공부 197명, 아담반 성경공부 98명 등 모두 406명이다.

주간성경공부 각과별 강사는 다음과 같

다.

▲아담반(창세기) 이종윤목사, ▲크로스웨이 성경공부 1권반(이종윤전도사), ▲크로스웨이 2권반(김경성전도사), ▲마가복음반(김학진목사), ▲로마서반(김장근목사), ▲예레미야애가반(김동열목사), ▲하박국반(김준태목사)

◎ 우수상=교사양성부: 김영민, 김창기, 김천환, 송재근, 강정일, 강희자, 김경숙, 김정미, 서인경, 채혜선, 찬양대원 양성부=박미영, 서인성.

맥추감사주일에 성찬예식 거행

교회는 지난주일(7월2일) 성찬예식을 거행했다.

이날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1부 562명, 2부 1,480명, 3부 3,502명, 4부 1,382명, 계 6,926명이 참여했다.(사진 카메라초점 참조)

새가족 환영회 성황 6월 등록자 180명 참석

교육위원회와 새신자부가 주관하는 충현새가족 환영회가 지난 2일 오후2시30분 갈릴리홀에서 있었다.

이날 환영회에는 6월 중 등록자 180명, 각 교구 교역자, 장로, 구역인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윤전도사 사회로 진행, 김기정장로(예배위원장)의 기도, 이종윤위원장의 환영의 말씀이 있었다.



△ 제3차 성찬식에 6,926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카메라초점



▲ 목회자세미나 제2학기 중강연회가 지난 3일 있었다.

교회 안내 비디오 상영과 샌프란시스코한 마티오 장로교회의 이영자집사의 신앙간증, 새 가족 소개 순으로 이날 행사를 마쳤다.

89년 농어촌 전도대원 모집

7월18일까지 전도위원회로 신청을

전도위원회(위원장: 윤종성장로)는 복음과 구원의 큰 빛을 지고 있는 충현성도 중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농어촌 전도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뜻이 있는 분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도위원회에 신청해주시길 원하고 있다.

전도대 파송일자는 1차는 7월24~7월28일까지이며, 2차는 7월31~8월4일까지이다.

학원선교회 창립위한 발기인회의 가져

학원선교회 창립총회를 앞두고 발기인회의가 지난 4일(화) 오후7시 전도위원회실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위임 이종윤목사는 "학

원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와 활동할 수 있는 방법강구, 각급 학교에서 하는 교육자선교회 활동과 학원복음화를 위한 공동전략 모색, 그리고 교회교육연구위원회와 연계하여 교육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도록" 특별 당부했다.

이날 선임된 준비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소속학교)

준비위원장: 안병호집사(경기, 연천, 왕산국 교감)

준비위원: 이인상집사(광문고 교장), 나희주집사(송실고), 김단용집사(해성여중), 조삼원(개원중), 최형열(여흥고), 엄복섭집사(성남서중), 홍영주(명일고), 김석영(영동중), 임창식(수도전기공고), 김영숙(해화여고), 이석정

(잠실고), 정정임(은로고).

창립총회는 7월9일(주일) 오후3시 선교관 4층 전도위원회실에서 갖는다.

많은 교사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산돌초청 전도집회 성황 교회학교 직장전도교육부

교회학교 직장전도 교육부(부장: 박영식장로)는 지난 2일 오전10시 소석관 414호실에서 산돌초청전도집회를 가졌다.

150여 명의 남여 청소년들이 참석한 전도집회에서는 1부예배(메시지: 송태근목사/전쟁을 일으키는 자), 2부 특별순서로 촛불점화, 축시낭송, 1분 메시지, 다같이 찬양, 허림집사의 신앙간증, 새가족환영, 그리고 전도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예배 성경강해 시리즈①



본문 / 요 5장 1-9절

이 세상에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보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것 같습니다. 절망의 종류도 가지가지여서 사랑하는 자의 상실, 사업실패, 가난, 질병, 패배와 배신 등등 많지만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절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38년된 병자는 그 절망이 비참을 넘어 치질의 단계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자가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생명의 욕구요, 원초적인 욕구로서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구는 강하지만 다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고 한계점입니다. 여기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환희의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곧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1. 완전한 절망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부림절-예수님은 12월 중순부터 1월 경에 사마리아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4에 보면 유월절이 나온다. 이 기간 사이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에 3월에 있는 부림절이라고 볼 수 있다(요 9:26)-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5:1). 본문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유대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림절은 유대백성 전부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지도자들만이 이것을 더 중요한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적개심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불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 여 적개심을 가지고 나오는

세워져 있다-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 환자 외에도 각종 환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난치병으로 인생의 종말을 보는 듯한 비참한 광경이 그곳에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지적된 병자는 소경과 절뚝발이, 혈기마른 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인 유대인들은 주님을 앞에 놓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절뚝발이가 바르게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도 완전히 무기력해진 혈기마른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병자는 38년된 병자였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를 이사야 35:6로 돌아가게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언을 성취시키므로,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절망에서 환희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갑자기 또는 우연히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베데스다 못이 한 번씩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 사람이 낚는다고 하는 이 간헐천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38년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이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3년 8개월이면 어떻게 좀 방도를 써 볼 수도 있었지만 38년-38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하던 그 기간과 똑 같다(신 2:14-15). 주님은 영적인 방황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이 38년된 불쌍한 병자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동안 이려고 있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중에 가장 약한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도, 타인도, 아무도 인생의 소망이 없다고 보는 가운데서 주님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오는 사람만이 진리가 타당하고, 내가 아직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환희에 이르는 길

예수님은 그에게 병문안도 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대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직도 현재의 상태로 만족하고 있는가' 병자의 대답은 생존경쟁에서 실패한 패배자의 대답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보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도넨 사람, 쫓겨난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38년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가야만 하는 데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데도 하겠다고 하는 데

인간의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실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소원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낫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키시고 고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여 내려가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자 하는 소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소원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발견한 것입니다.

소원은 신앙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야지 호흡이 끊어질 인생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두면 다 헛수고입니다(시 146:3-5). 부귀다남(副貴多男), 장수(長壽)만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어려울 때 찾을 분이 있고, 즐거울 때 감사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시 118:8-9).

(3) 순종

주님은 명령하시고 38년된 병자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령을 순종할 때 은혜는 더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은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을 분간할 수 없는 절망의 어두움에 휩싸여 있어도 환희의 빛이 비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간절 한 기대와 소망을 부어주시며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환희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협력해야 할 그 지도자들이 주님께 협력하지 않고 적대하였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인 병자는 양문-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북편에 위치한 이 문은 양을 팔고 사는 시장이 그 근처에 있다고 해서 양문이라 했다. 지금은 스테반문이라고 한다-겔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 연못은 자비의 집, 혹은 감람의 집, 행랑의 집과 같은 별명을 가진 곳인데 못의 깊이가 17미터가 되는 아주 큰 연못이다. 지금도 연못 앞에 가면 기념예배당이

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술한 병자 가운데서도 가장 불가능하고 비참한 사람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지의 심정으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하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고후 1:8-9).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병든 자요, 영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학원선교회 창립총회

7월9일(주일) 오후3시 전도위원회실

전도위원회(위원장: 윤종성장로)는 오는 7월9일 오후3시 선교관4층 전도위원회실에서 학원선교회 창립총회를 갖는다.

본교회에 등록된 초·중·고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전도위원회(전화 351, 406번)로 연락을 바라고 있다.

'89년도 여름 계절학교 오픈

7월10일부터 8월26일까지 18개 교회학교서 진행

89년도 계절학교인 여름성경학교 및 수양회가 대학부가 가장 먼저 시작하여 교육위원회 산하 18개 부서가 일제히 개최한다.

새가정부는 지난 6월6일 이미 실시했으며, 오는 10일(월) 대학부가 기도원에서 수양회를 개최한다.

대학부(부장: 이 훈장로)는 "이렇게 사랑하라"란 주제로 오덕교, 김익경, 마일수 목사 등의 강사로 진행되며, 16일부터는 청년1부와 2부가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한다. 저녁에는 공동으로 드리게 되며 강사는 이만열교수(숙대)이다.

청년1부(부장: 윤광일장로)는 제1회 하기수양회이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딤후 4:7)는 주제이다. 특강은 김해규목사의 "크리스찬의 경제윤리", 이조웅전도사의 "말세론"이다.

청년2부(부장: 손경수장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란 주제로 갖게되며 특강으로는 장희종목사와 송태근목사가 담당한다.

그 외 공동체 신앙훈련, 조별 분임토의, 각종 레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17~19일까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경암송대회 개최 교회학교 장년1부

교회학교 장년1부(부장/김재명장로)는 지난 7월2일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하여 최우

충현도서관에 새책 들어와

충현도서관(관장: 김원선장로)에 새로운 책이 지난주간 들어왔다.

각 과목별 신간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강해

· 산상수훈강해(상)/제임스 보이스,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무장하고서 살라/워렌 위어스비, 나침반사(에베소서 강해) · 천국의 윤리(산상수훈강해)/곽선희, 양서각 · 누가복음서 강해 1,2/존 라일, 기독교문사 · 요한복음서 강해 1,2,3/존 라일, 기독교문사 · 로마서 강해(7)/로이드 존스, 기독교문사 · 요한복음 강해 3,4/아더 핑크, 엠마오 · 요한복음 강해 3/박영선, 엠마오 · 시편강해 설교집 1/김창인, 충현교회출판부.

● 기독교윤리와 현신신학

크리스찬생활(인도, 안내)

· 영적 침체/마틴 로이드 존스, 새순 출판사 ·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캠벨 물간, 나침반사 · 이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찰스 M. 웰돈, 세종문화사 · 빛을 따라서/김장원, 혜진서관 ·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웨치만 니, 생명의말씀사 · 크리스찬의 신앙곡선/이종윤, 충현교회출판부 ·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시들로우 백스터, 여수문.

● 명상, 묵상(고전)

· 나의 주 나의 하나님/송인규,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 젊은이를 위한 명상/찰스 카우만, 생명의 말씀사 · 천로역정/존 번연, 유성덕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하나님의

수상에는 이목화씨가 차지했다.

시온성대행진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암송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만30세~39세 성도는 장년1부에 참석하여 성경

공부에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최우수상/ 이목화

△1등=이중건, 2등=김윤선, 3등=이홍걸, 장려상=김종섭(사진)

장로칼럼

※ 다음 글은 지방에 계신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고3 아들에게 보낸 편지형식의 칼럼내용이다.(편집자 주)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성현(장로·초등부 부장)

더 멀리, 더 높이 보며 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가슴에 담을 수 있단다.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큰 꿈을 갖고서 생활하기 바란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장차 어떻게

게 사용하실 것인가하는 기대를 갖고 준비하면서 정진하길 바란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비적 책임자로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열고, 또 자신과 이웃을 향하여 귀를 열 때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며, 또한 너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을 이 아버지는 믿고 있단다. 이 확신이 성공의 열쇠임을 믿고 함께 노력하자. 이 노력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큰 힘이 되겠지?

아들아!

몇 달 후의 결과에 순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몸조심하거라.

목회자세미나 2학기 종강 제3학기는 9월18일 개강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제2학기 종강예배가 지난 3일 오후2시 본당에서 드렸다.

제1교시 "교회의 예배의식" 주제로 정규남 교수의 강의와 제2교시 "산상보훈강해" 주제 이종윤목사의 강의를 끝난 후 계속해서 제2학기 종강식을 가졌다.

종강예배에는 1,160명이 참석했으며, 제2학기 총등록인원은 1,744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날 저녁은 교회서 마련한 저녁식사가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사랑/성 버나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개인신앙생활(수기 및 실화)

· 지기: 동베를린 탈출/그웬 쇼, 보이스사 · 고향을 묻지 마시다(고당 조만식장로 신앙, 애국 일대기)/김요나, 엠마오 · 내 아버지의 집/코리넬 봄, 보이스사 · 호박꽃 나라사랑/차경수, 기독교문사.

● 간증

· 십자가의 증인들(15인 간증 다이제스트)/임영천 편, 홍성사.

● 기독교윤리

· 현대인과 윤리/맹용길, 기독교문사 · 기독교세계관/콜린체프만, 나침반사.

한편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은 제3학기 개강

을 오는 9월18일(월) 가길 계획이며, 11월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강의가 계속된다.

제3학기 목회자세미나 프로그램은 별항과 같다.

제3학기 세미나 프로그램 '89. 9. 18~11. 20(매주 월 14:00~17:20)

일 자 (매주월)	제 1 교 시 14 : 00 - 15 : 30	제 2 교 시 15 : 50 - 17 : 20	
		제 1 교 시	제 2 교 시
9월 18일	과목: 성경적 교회론	현대신학의 동향과 그 전망	이보민 교수 화산 칼빈신학대학원 신학박사 · 현 고신대학원 교수
25일		성경신학의 동향과 전망	권성수 교수 미국 웨스터민스터신학교 신학박사 · 현 충신대학원 교수
10월 2일		기독교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은준관 교수 미국 퍼시픽대학 신학박사 · 현 연세대 신과대학 학장
9일		칼빈의 신학과 목회	이형기 교수 미국 드류대학 신학박사 · 현 장신대 교수
16일		신학교육과 목회	김명혁 목사 미국 아퀴나스신학대학원철학박사 · 현 함동신학교 교장
23일	강사: 이종윤 목사 영국 성안드류스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 현 충현교회 위임목사	신학과 이데올로기	김영환 교수 서울하이델베르그대학철학, 신학박사 · 현 숭실대 교수
30일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	옥한흠 목사 미국 칼빈신학교 졸업 · 현 사상의교회 담임목사
11월 6일		교회교육의 신학적 기초	정일용 교수 서독 본대학 신학박사 · 현 충신대학원 교수
13일		기독교 교육과 목회	주선애 교수 미국 펜스대학 인문학박사 · 현 장신대명예교수
20일		웨슬레의 신학과 목회	조종남 교수 미국 예모리대학 철학박사 · 현 서울신학대학 학장

충현프리즘

☆ 교회 버스에 시트카바 기증

본교회 김경숙 성도(서초구 반포1동 미도아파트 303동 511호)가 교회버스(대형 45인승) 의자에 약 7만원 상당의 카바를 기증하여 이용자들에게 깨끗한 기분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 「주간충현」 큰 관심 끈다.

윤광열 성도는 「주간충현」 편집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창간된 지 불과 4개월 밖에 안 되는 주간지로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심을 끌게하는 것은 두루 기존의 일반 간행물을 접하고 있는 저로써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과 받아들이고자 하는 信心의 작용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여러분의 사심없는 간절한 기도와 그 속에서 묻어나는 깊은 열정의 소산이 아닌가 싶어 늘 감사하면서 애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충현지는 모든 이들의 충족을 다 매꾸어 줄 기관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충현인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카바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하는 교회행사의 홍보는 참으로 큰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교인이면서 한 식구가 못되고 손님처럼 배회하는 교회 활동에 피동적인 소수의 기피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의 주파수를 던져 주었다고 보아지며 저 역시 이해택을 입은 장본인입니다.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중략)

☆ 목회자 세미나 뒷소식

매주 월요일 오후2시~5시30분까지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는 지난 3일로 2학기 종강식을 가졌는데, 매주 강의 녹음테이프는 1,500여 개, 서적은 141권, 주간충현 1,500부, 교회주보 1,500매가 배포되며 그리고 봉사요원(행정요원 12, 포함) 50여 명이 동원되어 안내와 설의를 맡고있다. 그뿐 아니라 교역자들이 타고오는 승용차 99대, 봉고차 137대 등 236대가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대단한 열기이다.

외로움에 지쳐 소외당하고 그리움에 지쳐 목메이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기쁨의 만남을 주시고

실패와 좌절속에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새소망을 북돋아주소서

이것들로하여

마땅히 주실바를 분별하는 영안을 뜨게하시고 쓰리바 도구됨을 깨달아 대기(待機)케 하시고 믿음과 삶이 일체임을 새겨 받드는 삶이게 하소서.

원고모집

「주간충현」은 성도 여러분의 원고를 언제든지 접수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모든 내용을 투고해 주시면 정성으로 편집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주간충현 편집국

독자시

믿음과 삶의 기도

윤광열

주여!

풍랑이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난제들로 몸부림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말라 하시고

덜 새 없이 도전해 오는 악의 독세에 물려 벗어날 출구마저 잃고 낭패당할 때 피할 들창문을 열어주시고

소용돌이치는 세파에 찢긴 육신의 상처로 정신이 혼미해 영혼마저 위협당할 때 만병의 제거자로 간병해 주소서

특히

원망과 불신이 판을 치지 않도록 풍요 속에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에게 일터와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난치병으로 사정을 해매는 절박한 이들에게 치료와 투약의 혜택을 주시고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7월 14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28과 올바른 기도

성경: 마태복음 6:5-8

요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찬송: 361, 480, 482장

기도는 연약한 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것이고, 낭패와 좌절을 당한 자가 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니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기도무용론이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1.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격려와 위로, 그리고 도움을 얻기 위해 하루간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 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한 그릇된 기도의 모습을 예수께서 지적하여 주셨다. 노골적으로 우상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다분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하고,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기도하는 일이 있음을 경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생활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기도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실제로 나아가 그분께 구하고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지 힘들고 싫증나는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권 중의 하나인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는 것이다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라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나아가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진정한 기도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

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19, 22)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의와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에는 아무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주인에게 구걸하는 종처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도 크고 많은 것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것이므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확신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3.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엡 6:18)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의지하는 류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며 영이신 하나님을 실재적인 존재로 의식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사상을 조성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기도 중에 우리의 지각을 깨우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자유로이 기도의 언어를 구사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또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감화 인도받는 기도인 것이다.(고전 2:10, 롬 8:27)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고로 우리를 진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열납되는 기도가 되게 하신다.(요 16:13)

■ 함께 생각합시다

1. 기도가 신자들에게 왜 특권이 되는가?
2.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롬 8:32)
3.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는가?

■ 공동기도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 주의 놀라우신 임재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기도생활이 되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담대함과 확신 중에 기쁨과 감사로써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의 크신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 열납되는 기도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